

◇심근경색을 동반한 허혈성 심질환의 관동맥우회로조성술의 조기 수술성적

장원채, 오상기, 나국주, 안병희, 김상형

전남대병원 흉부외과

**배경 및 목적** : - 급성심근경색을 동반한 허혈성 심질환에서의 관동맥우회로조성술은 수술사망율이 높은 질환으로 심근경색의 정도나 부위 및 합병증의 동반여부 등이 예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에 본 연자는 전남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심근경색증을 동반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동맥우회로조성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성적을 분석 보고하고자 한다.

**방법** : 1992년 10월부터 1998년 8월 사이에 관동맥우회로조성술을 받았던 환자 중 심근경색을 동반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던 61례를 대상으로 하였다. 평균 나이는  $57.17 \pm 8.86$ 세 였으며 남자가 45례 여자가 16례였다. 위험인자는 흡연이 31례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당 평균 1.84개 이었다. 합병증으로는 심인성 쇼크 16례, 심실중격파열 5례, 좌심실류 5례, 유두근파열 2례를 포함 급성 승모판폐쇄부전증이 7례있었다

**결과** : - 관동맥 이식편수는 총 192개로 평균  $3.15 \pm 1.19$ 개였다. 5례의 심실중격파열 레는 Patch를 이용한 심실중격봉합술을 시행하였고 5례의 좌심실류는 4례에서 좌심실류절제 및 봉합술을 1례에서는 좌심실류봉합술을 시행하였다. 급성승모판폐쇄부전이 있었던 레에서 2례에서는 판막윤성형술을 시행하였고 4례에서는 승모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다. 수술 사망은 8례로 13.1%였다.

**결론** : - 심근경색을 동반한 환자에서 관동맥우회로조성술은 경색에 의한 심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심인성 쇼크, 심실중격파열, 급성승모판폐쇄부전증, 좌심실류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사망율을 줄이고 생존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

책임저자:안병희(전남대학교) 발표자:장원채(전남대학교병원)